

국립공원의 야생화

백암산서도 자라는 난초과 부생 식물

<81> 애기천마

애기천마는 5~15cm 정도로 자라는 난초과에 속하는 부생(腐生) 식물로 활엽수림의 그늘지고 습한 지역에서 자생한다.



주로 제주도에서 자라지만 내륙에서도 백암산 정상 부근에서 10여 개체의 군락지를 필자가 확인했다.

천마(天麻)와 비슷하지만, 크기가 작아 '애기천마'라고 이름 붙여졌다. <박석배 내장산국립공원 백암사무소 자원보전과장>

소녀시대 '2010-2012 한국방문의 해' 홍보대사

한류스타인 그룹 소녀시대가 '2010-2012 한국방문의 해'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11일 이같이 전하며 위촉식이 19일 오후 2시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소녀시대는 이미 홍보대사로 활약 중인 배용준, 김연아, 애니메이션 캐릭터 뽀로로와 함께 홍보활동을 펼치게 된다.

일본 대학생들 조선대서 태권도 수련



조선대학교가 오는 26일까지 3주 동안 개최하는 '2011 International Summer School'에 참가한 일본 대학생들이 11일 오후 체육대학 지하 태권도장에서 태권도 수련을 하고 있다.

건강관리협-광주 양동시장 업무 협약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본부장 이근익)와 광주양동시장(주) (대표이사 김영호)은 10일 양동시장 회의실에서 시장의 활성화, 회원 및 가족, 고객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축구가 좋아 자원봉사 나선 낭랑 18세 "경기장 찾은 팬들에 재미 2배 드려요"

광주FC 마스코트 '화니·보니' 강하연·정정애양



"KIA 타이거즈에 '호돌이'가 있다면 광주 FC에는 '화니·보니'가 있습니다."

광주시민구단 광주 FC의 마스코트 인형 '화니'와 '보니'가 화려한 막춤(?)과 예교로 팬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지난 4월부터 광주 FC의 마스코트로 활동하고 있는 강하연(18·전남여고 2년·사민 오른쪽)·정정애(18·광주여고 2년)양.

"올 초 광주 FC 시민 초청 행사 때 선수들의 열정에 반했어요. 그래서 경기 때마다 경기장을 찾았고, 무언가 힘을 보태고 싶어서 경기 진행

자원봉사를 시작하게 됐죠. 그런데 갑자기 마스코트를 하시면 분이 그만두면서 저희가 호기심에 하겠다고 자원했어요."

처음에는 생각만큼 쉽지 않았다. 경기 시작 3시간 전부터 경기장을 찾아가 그날 동선을 살펴야 했다. 그리고 선수들과 함께 등장할 때 어떻게 하면 선수들이 돋보일 수 있을지 고민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 팀의 마스코트보다 팀을 빛내고 있다. 때로는 관중석을 뛰어다니며 팬들의 반응을 이끌어 내고, 때로는 흥겨운 막춤으로

경기의 재미를 더하기도 한다. 어린이 팬들과 사진을 찍어주는 것도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

"마스코트 인형이 되면 평소의 저와는 다른 사람처럼 더 열심히 하게 돼요. 평상시에는 업무도 내지 못했던 춤도 자연스럽게 추고요, 그리고 관중석에서 볼 때와 달리 마치 제가 선수가 되어 뛰는 기분도 들어요."

지금은 각각 화니와 보니 역할을 하면서 환상적인 호흡을 뽐내고 있는 '단짝' 하연이와 정애도 축구장 자원봉사를 통해 만나게 된 사이라고 한다. 홈 경기에서는 마스코트로 봉사하고,

원정 경기 때면 광주 FC 서포터즈 회원으로 여김없이 전국 경기장을 찾아다니면서 말이다. 축구가 우정을 만들어 준 셈이다.

"비록 광주가 지금은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지는 못하지만 매 경기 최선을 다해 뛰는 선수들의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요. 바람이 있다면 팬들이 더 많이 늘었으면 해요. 시민 구단이니 만큼 광주 시민들이 사랑해주면 앞으로 더 좋은 성적을 기록하게 될 거예요. 응원해주세요."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김윤수 전남대 총장 'UKC 2011' 참석



김윤수 전남대 총장이 '제11회 한국과학자대회(UKC 2011)'에 참석하기 위해 11일 미국을 방문했다.

14일까지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개최되는 UKC 2011은 제11회 한국과학자들의 최대 규모 국제학술회의로, 한미 양국의 과학기술인 900여 명이 참가한다.

서경덕 교수 뉴욕서 아리랑 영상광고



'한국홍보 전문가' 서경덕(37) 성신여대 객원교수가 10일(현지시간) 오전부터 뉴욕 맨해튼 타임스퀘어 광장의 가장 큰 전광판인 TSQ 광고판에서 아리랑 관련 영상광고의 상영에 들어갔다.

광복절을 앞두고 제작된 '들리시나요?'(DO YOU HEAR?)라는 제목의 이 광고는 30초 분량으로 한시간에 두번, 한달간 1500회 정도 노출될 예정이다.

인사

- ◆강진군 <승진(4급)> 기획실장 최형택 <5급> 울천면장 직무대리 백종일 <6급> 행정팀 신기은 <전보(4급)> 사회복지팀장 장경록 <5급> 군동면장 송기훈 <6급> 인사팀장 임준형 ◆신안군 <4급 승진> 종합민원실장 노순용 ▲지도읍장 정희국 <5급 승진> ▲세무회계과 경리담당 김지곤 ▲행정지원과 자치행정담당 김중오 ▲민간협력담당 이태곤 ▲환경공원과 환경시설담당 이충만

달인 김병만 에세이 '꿈이 있는 거북이...' 출간

개그맨 김병만이 첫 자전 에세이 '꿈이 있는 거북이는 지치지 않습니다'를 10일 펴냈다.

전북 완주 산골에서 가난한 집안의 1남 3녀 중 둘째로 태어난 그는 이 책에서 '달인' 연기로 인기를 얻기까지의 과거사를 진솔하게 털어냈다.

가진 것은 꿈밖에 없던 20대 초반부터 7전8기 끝에 공채 개그맨이 된 데 이어 '죽을 각오로' 열심히 했던 무명 개그맨 생활, 그리고 '개그콘서트' 코너 '달인'으로 스타로 부상하기까지 이야기가 펼쳐진다. 이수근을 비롯한 개그맨 지망생



들과 함께 대박의 근처 옥탑방에서 합숙하던 시절의 이야기도 담겼다. 그는 지망생 시절에 대해 "공중화장실에서 몸을 씻다가 알몸으로 망신을 당하기도 하고 계속되는 오디션 탈락에 수면제도 모으고 건물 옥상 난간에 서보기도 했습니"라며 "비참하게 좌절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돌아봤다. 김병만은 생활고에 시달렸던 어

린 시절과 아픈 가족사도 밝혔다. 책에는 이밖에 공연장과 일상 속 김병만의 다양한 사진과 함께 '달인' 팀의 류담과 노우진이 들려주는 김병만에 관한 이야기, 김병만이 즐겨 해먹는 요리 조리법 등도 실렸다. 김병만은 책에서 스스로 '거북이'라고 불렀다.

"뽀지는 못하지만 쉬지 않고 영감을 기어오려 왔어. 한순간에 확 뜨는 사람은 중간에 여유를 부릴 수가 없겠지. 기어오르다 내 목표까지 가고 말 거야."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평생의 삶 기부 '할머니 천사'

작년 12월 10일 명동성당 정진석 추기경 집무실에 80대 할머니가 찾아왔다. 딸과 함께 온 한재순(세례명 미카엘라) 할머니는 정진석 추기경에게 1억 원짜리 수표 9장을 건네며 "이 세상에서 나와서 잘한 일이 없는데, 좋은 데 써 달라"고 했다.

할머니는 또 쪽지를 내밀면서 '용기장학회'라고 적힌 쪽지를 내밀며 "이곳을 위해서도 써주세요"라고 말했다. 용기장학회는 고(故) 김수환 추기경이 설립한 장학재단이다.

이날 서울대교구에 9억 원을 기부한 할머니는 5일 뒤 한 수도원에 1억 원을 내놨다. 남편과 함께 채소장사, 쌀장사를 하며 다섯 남매를 키운 할머니는 따뜻한 살림에 평생을 아끼고 절약하며 살았다.

10억원은 할머니가 평생 먹은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한판 두판 모은 돈이었다.

할머니는 추기경 집무실 방문 당시 동행한 둘째 딸 외에 아무에게도 기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평생 근검절약하며 서로 아껴주며 살았던 부부는 지난날 차례로 세상을 떠났다. 남편 홍용희



한재순(왼쪽)·홍용희 부부 생전 모습. <유족 제공>

(세례명 비오·향년 82세)씨가 지난달 26일 지병으로 별세한 데 이어 건강했던 할머니도 뇌졸중으로 이를 뒤인 28일 83세를 일기로 일별했다.

정 추기경은 장례 미사 추도사에서 "재물이 아니라 부부 평생의 삶을 아낌없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내놓았다"고 애도했다.

/연합뉴스

생활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062-222-4938)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8 FAX. 062-222-4938, 222-4918

화측

▲김재정(전 동구청 사회산업국장)·이미숙씨 장남 민석군 오세웅·안영자씨 차녀 미영양=13일(토) 오전 11시 30분 광주시 서구 메리어트웨딩홀.

▲최세일·조남옥씨 차남 택진군 김윤세(호남직업전문학교 이사장)·유순옥씨 장녀 민혜양=20일(토) 오전 11시 30분 서울 강남구 역삼동 GS타워 1층 아모리스홀. 출발 : 오전 7시 광주시청 앞. 피로연 : 12일(금) 오후 6시 신양파크호텔.

동창·동문회

▲무안초교 50회 총동창회(회장 김영갑) 수련회=14일(일)~15일(월) 무안 망운 피서리 톨 관광콘센.

알림

▲광주성명의 전화(실장 장식) 24시간 전화상담(1588-9191)=월~금 오전 9시~오후 3시까지 가점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들에게 상담을 통한 정서적 지지와 격려. 062-223-9191.

▲인구보건복지협회. 성폭력상담소=성폭력(의료, 법률, 상담지원), 청소년성상담 및 성교육. 062-673-1366, 062-671-4050.

▲광주노인보호전문기관=24시간 노인학대 상담 및 신고 전화 내용 비밀 보장 1577-1389.

▲광주해바라기 아동센터 무료 상담 및 의료·법률 지원=성폭력 피해를 입은 13세 미만 아동 및 정신장애 장애인을 대상으로 긴급구조, 의료·법률 지원 및 심리 치료 등 서비스

톱 서비스 062-232-1375, www.forchild.or.kr

▲중고컴퓨터 기증하실 분=광주·전남대내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 장애인에게 중고 PC를 기증하실 개인, 단체, 기관 환영. (사)장애인복지회 광주·전남본부 062-511-0030.

모집

▲리본공예 수강생=취미반, 지도자반, 창업 자격증반 수시모집 010-9853-2121.

▲2011년 등하교 도우미 봉사자=19일(금)까지 모집. 중앙초·계림초·장원초·산수초·울곡초 근처, 여성(나이제한 없음), 교통비 등 살비보상. 동구자원봉사센터 062-228-1365. ▲2011년 숲해설기 양성과정 교

육성 모집=숲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 접수는 13일(http://cafe.daum.net/forest-guide) 접속 후 지원서 다운(토)까지. 교육기간 8월 16일~12월 10일. 광주·전남숲해설가협회 사무실 062-223-3279.

▲조기축구 회원=운동으로 신체와 마음을 건강하게 하실분 모집. 문화초등학교 오전 6시~7시 011-641-0741(손철동)

▲어린이재단 광주기정위탁지원

센터 일반위탁가정=부모의 질병, 가출, 학대 등의 이유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보금자리를 만들기 위한 일반위탁가정을 모집 062-351-1206.

▲자원봉사 상설프로그램 참가자=인권, 환경 등 주제가 있는 자원봉사 학습 및 활동, 초·중·고·대학생 등 일반시민 누구나 참여가능. 봉사활동 확인서(3시간) 발급. 광주광역시자원봉사센터 062-613-5587.

▲축산물 지킴이 회원=장성 축

령산을 공유하고 편백의 숲을 지키기 40~50대 회원 011-646-3577.

부음

▲김정섭(조선대 건축학과 교수)씨 별세 상선·효선씨 부친상 남윤수씨 부부상=발인 12일(금) 무등장레식장 101호 062-515-4488.

▲박춘복씨 별세 석천·석원·석

주·석중·석춘·석치·선미씨 부친상=발인 13일(토) 무등장레식장 203호 062-515-4488.

▲차중술씨 별세 명수·명렬·명석·명심씨 부친상=발인 13일(토)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6분향소 062-231-8906.

▲박일순씨 별세 이명교·정교·영교·영숙씨 모친상=발인 12일(금) 무등장레식장 102호 062-515-4488.

Advertisement for funeral services (상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with contact information and details for various families.

Advertisement for funeral services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with contact information and details for various families.